

# 게임신작 ‘우르르’... 불꽃놀이부터 드론쇼까지 볼거리 ‘풍성’

## 지스타2023 개막 D-1

해운대해수욕장 중심 퍼포먼스 유명 인플루언서들 직접 플레이

위메이드 가수 청하 무대 초청  
엔씨소프트 ‘플레이 엔씨’ 진행  
넷마블 신작 3종 현장 이벤트

지스타2023를 이틀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각 게임사들이 선보이는 신작들 뿐 아니라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람객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1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부산백스코에서 열리는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2023에는 불꽃놀이, 드론쇼뿐 아니라 인플루언서, 연예인들이 꾸미는 다채로운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올해 지스타는 코로나 엔데믹과 수능 이후 열리는 최대 행사로 현장에서 거는 기대감이 크다.

우선 올해도 메인 스폰서인 위메이드는 위메이드 및 위믹스(WEMIX)



지스타 엔씨소프트 부스에 출연을 예정한 인플루언서들.

/엔씨소프트

모델인 가수 청하 무대를 준비 중이다. 가수 청하는 오는 18일 오후 3시30분부터 기업 및 소비자 간 거래(BTC) 관 위메이드 부스에 위치한 스페셜 스테이지에서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또 같은날 오후 8시 해운대해수욕장을 중심으로 라이팅드론과 불꽃퍼포먼스 등의 즐길거리도 준비했다. 이에 따라 게이머들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됐다.

엔씨소프트(이하 엔씨)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플레이 엔씨(PLAY NC)’를 진행한다. 엔씨가 올해 지스타에서 선보일 시연작 3종을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직접 플레이해보는 코너다. 현장에 방문하지 못한 관람객들은 엔씨 공식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하다.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PLAY NC 1부에서는 ▲

MC ‘정소림’ ▲캐스터 ‘최광원’ ▲인플루언서 ‘이녕’, ‘김블루’가 신작을 플레이한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MC ‘김효진’ ▲캐스터 ‘박상현’ ▲인플루언서 ‘우정잉’, ‘나너루다’가 무대에 오른다.

데브시스터즈는 구글플레이 부스에서 ‘침착맨’, ‘우정잉’, ‘홀릿’, ‘통닭천사’ 등 유명 인플루언서와 한 팀이 되어 신작 ‘쿠기런:모험의탑’ 레이드모드를 타임어택으로 플레이하는 인플루언서 대전을 개최한다. 인플루언서 1명과 유저 3명이 한 팀이 돼 상대 팀과 대결하는 형태로 진행한다.

네오위즈 자회사 파우게임즈도 신작 ‘영웅전설: 가가브 트릴로지’(이하 영웅전설)를 선보인다. 부스 현장에서는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한 게임 시연은 물론, 스페셜 사전예약 및 랜덤 캡슐 뽑기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여러 게임 인플루언서들이 참여하는 ▲‘영웅전설 퀴즈쇼’ ▲‘영웅전설 최애캐(최고로 애정하는 캐릭터) 픽’ ▲‘보

스전 스코어 매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넷마블은 신작 3종의 게임성을 보여줄 현장 이벤트를 마련했다. 먼저, ‘일곱 개의 대죄: 오리진’은 ▲리오네스토벌 대회 ▲페르젠 광산 타임어택 이벤트를 개최한다. 리오네스토벌 대회는 오픈월드 모드에서 정예 몬스터 토벌 등 미션을 수행하는 이벤트로, ▲변승주 ▲꾸티뉴 ▲와나나 등 인플루언서들이 팀을 이뤄 승부를 펼칠 예정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이 지난해에 비해 신작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대 행사까지 풍성하게 준비했다. 신작 홍보가 골자지만 일반관객들을 위한 부대행사도 많다.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볼거리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장에서 거는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 “韓 고객 생성AI 데이터, 서울 리전에 보관” 카카오택시, 가맹수수료 3% 이하 추진

### 구글 클라우드 서밋 2023 개최 생성형AI 활용 데이터 보안 우려에 “韓 고객사에 높은 보안 서비스 제공”

한국 기업들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보안 우려를 한시름 놓게 됐다. 구글 클라우드는 한국 고객사에 대해 앞으로 서울에 마련한 리전(Regions)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해 높은 보안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구글 클라우드가 1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구글 클라우드 서밋 2023’을 열었다.

강형준 구글 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은 “비즈니스 리더에게 생성형 AI는 신기술을 넘어 완전히 새로운 가치 흐름(Value stream)”이라며 “우리 구글 클라우드는 기업이 AI를 비롯한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새로운 비즈니스 라인을 창출하고 포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고 밝혔다.

생성형 AI는 각 기업에 빠른 속도로 여러 변수에 대응한 연산을 처리하고 분석할 수 있어 많은 단계의 기업 활동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결



강형준 구글클라우드 코리아 사장이 서밋에서 구글 클라우드의 한국 고객사 지원 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구글클라우드

과물 생성을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가 추가로 생산되고 해당 데이터가 보안 취약점을 갖기도 하는 등 문제도 안고 있다.

구글 클라우드는 이날 ‘버텍스 AI(Vertex AI)’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고객사에 대해 글로벌 9개 지정 리전을 포함해 한국 구글 클라우드 서울 리전(Regions)에 저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팜2(PaLM2)’, ‘코디(Cody)’, ‘이미젠(Imagen)’ 등 구글 기반 모델과 텍스트, 이미지 등을 모두 대규모 모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숫자로 변환시키는 임베딩 API도 포함한다.

국내 리전을 마련해 기업에 제공한 사례는 다국적 클라우드 기업 중 구글 클라우드가 최하다. 국내 리전 사용자 생성형 AI를 활용한 모든 결과물과 연산이 국내 데이터센터에 머물러 보안에 큰 키포인트가 된다.

강 사장은 “한국 기업들의 큰 우려 중 하나는 기업 고유의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구글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학습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하고 고객이 직접 암호화된 키를 직접 관리하도록 해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구글 클라우드의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 계획도 밝혔다. 현재 구글 클라우드는 한국 정부가 요구하는 클라우드보안인증(CSAP) 신청 절차를 순차적으로 받고 있다. CSAP 인증은 국내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격 조건이다. 구글 클라우드가 이번에 CSAP 인증을 획득하면 할 경우 아마존웹서비스(AWS) 외국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국내 공공 클라우드 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KT, 5G·위성통신융합 기술 비전 제시

### 6G 포럼 공식 사이트서 공개

KT가 ‘위성통신의 도심항공교통(UAM) 적용’을 주제로 한 6G 포럼 이슈리포트를 6G 포럼 공식 사이트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6G 포럼은 차세대 이동통신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만들어진 민간 합동

포럼이다. KT는 6G 포럼 산하 차세대 모빌리티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슈리포트 발간을 통해 UAM 안전 운항에 필요한 위성통신 기술 적용 계획과 비전을 제시했다.

KT는 이번 이슈리포트에서 2025년 상용화를 앞둔 UAM에 위성통신 기술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K-UAM

과 KT 컨소시엄 동향 ▲위성통신 동향과 기술 ▲UAM을 위한 위성통신 기술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위성통신은 5G 항공망과 함께 UAM 기체를 관제하고 승객에게 원활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힌다. 높은 비용과 전송 속도 문제로 기존에는 항공기와 선박 중심으로 활용됐으나 최근에는 스마트폰에도 위성통신 기술이 적용되는 등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구남영 기자

### 택시 사업 구조 전면 개편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 구조 전면 개편에 나선다. 가맹 택시 실질 수수료율을 기존 최대 5%에서 3%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업계 4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가맹택시 업계 대표(한국티블루협의회) 등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합의했다.

이 자리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류공선 대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복규 회장,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권수 회장,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봉균 사무처장,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구수영 위원장, 한국티블루협의

회 장강철 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택시단체들은 가맹택시 수수료 체계 개선과 카카오모빌리티 독과점 논란에 대한 해소를 요구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단체들의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기사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규 출시할 가맹 서비스의 가맹 수수료율(계속 가맹금)을 3% 이하로 책정할 것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5만명 이상의 기사가 참여하며 구축된 기존 각종 가맹 시스템 체계를 일괄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저렴한 수수료’가 적용된 새로운 가맹 택시 서비스를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가맹 기사 부담 최소화를 가장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SKT, AI서버 액침냉각 통해 전력사용 37%↓

### 차세대 서버 열관리 기술

SK텔레콤(SKT)이 전력 사용량 약 37%를 절감하는 냉각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14일 밝혔다. 액침냉각은 각종 서버를 전기가 통하지 않는 특수 냉각유 속에 넣어 냉각하는 차세대 열관리 방식이다. SKT가 검증에 성공한 액침냉각 시스템은 효율적인 냉각 효과와 전력 절감 효과로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차가운 공기를 순환시키거나 송풍기를 통해 냉각하는 기존 공랭식 시스템과 다르게 전기는 통하지 않고 열전도는 높은 특수 냉각유에 서버를 직접 넣어 냉각하는 유냉식 시스템이다.

공기보다 열전도가 높은 냉각유를 사용해 열을 흡수하고 공기냉각에 필요

한 서버 송풍기를 제거할 수 있어 서버의 전력 절감도 가능하다. 서버 주요 고장 원인인 습도, 먼지,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워 서버 수명 연장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서버 내부의 발열체인 중앙처리장치(CPU), 그래픽처리장치(GPU)뿐만 아니라 메모리, 저장 장치 등 시스템 전체의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장비 고장도 줄일 수 있다.

SKT는 액침냉각 전문회사인 미국 GRC 설비와 다양한 제조사의 테스트용 서버, SK엔투브의 특수냉각유로 SKT 인천사옥에 액침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4개월간 테스트를 진행했다. 그 결과 기존 공기냉각 대비 냉방 전력의 93%, 서버전력에서 10% 이상이 절감돼 총 전력 37%가 절감되는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남영 기자